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금주 미사 독서: 김정기 토마스 아퀴나스, 윤여진 엘리사벳	+ 지난주 우리의 정성 교무금 : \$230 봉헌금 : \$186 캠프관련 : \$405 합계 : \$821 봉헌봉사: 김태진 하삼바오로 다음주 봉헌봉사: 전은숙 글라라 * 매월 마지막 주는 2 차헌금이 있습니다.
다음 주 미사 독서: 이승환 안드레아, 이정미 안나	
금주 미사 복사: 최고은 소피아	
다음 주 미사 복사: 윤지희 데레사, 이지은 윌프레드	
금주 미사해설: 윤지희 데레사	
다음주 미사해설: 우명희 카타리나	반 주: 조은영 베다, 조은경 수산나, 황지혜 레지나 회 계: 김정기 토마스 아퀴나스, 심윤필 베르나르도 친교실 정리: 1 구역
주 일 미 사	
고 백 성 사	
성 가 대 연 습	
친교/간식 모임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미사 전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성가대장: 석우경 안드레아, 고미현 다미아나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금요 성서모임 성모회 금요기도모임 교리 모임 기타 모임	격주 금요일 저녁 7 시 30 분 사제관 (7 월 27 일) 다음 기도모임 9 월 첫주 금요일(장소 계시관 참고) 격주 토요일 오후 2 시 45 분 성당친교실 (8 월 4 일) 격주 금요일 저녁 8 시 홍진국 클레멘스 형제님집 (8 월 3 일)
† <구역모임 알림판>	
1 구역	매월 둘째주 토요일
2 구역	매월 첫째주 토요일
3 구역	매월 셋째주 토요일
대학원 구역	미정
학부생 구역	미정
† 오늘의 묵상	
사도들은 자신들의 사명을 마친 뒤 예수님께 돌아와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행하고 가르친 일을 보고합니다. 사도들은 사람들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병자들을 헌신적으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분명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지친 그들에게 따로 외딴곳으로 가서 좀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르나르도 성인은 제자였던 에우제니오 3 세 교황에게 이렇게 조언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과 잘 지내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누구에게든 잘할 수 있겠습니까? ‘너 자신에게 베풀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희생하려면 자신의 영혼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책임감 때문에 쉴 시간을 가지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영혼에는 소홀해지게 됩니다. 과중한 업무는 불평불만으로 이어지고 결국 내적인 공허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바로 이때가 주님 안에서 휴식을 취할 시간입니다. 쉬는 것과 노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주일에 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때때로 피정을 하는 것은 일상의 일을 접고 주님 안에서 편히 쉬는 것입니다. 휴식으로 영적인 힘을 얻어야 일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주임 신부
박상훈 알렉산더
(224) 217-0512
거주사제 유성모 요셉
(608) 293-1114
사목회장 김태진 하삼바오로
(608) 628-7977
연중 제 16 주일



홈페이지
club.catholic.or.kr/theccm
Facebook 그룹
매디슨한인천주교회
E-mail
kccmwi@gmail.com

2012 년 7 월 21 일

<제 1 독서> 예레미야서 23,1-6

<제 2 독서>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2,13-18

회답송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 ◎
○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
○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
○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복 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 알렐루야.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30-34

복 음

그때에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 와,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다 보고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따로 외딴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따로 배를 타고 외딴곳으로 떠나갔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모든 고을에서 나와 육로로 함께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다다랐다. 예수님께서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영성체송] 당신 기적들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로우시다. 당신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오늘의 성가] 시작: 435 봉헌: 70 성체: 153 파견: 453



겨자씨의 비밀 2

최인호 베드로 | 작가

겨자씨의 비밀을 발견한 것은 최근에 우연히 「성녀 소화데레사 자서전」을 다시 읽은 후였습니다.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는 책은 읽을 때마다 감동을 불러일으키는지 지금껏 수 차례 읽었음에도 새로운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소화 데레사는 널리 알려진 대로 15 살에 가르멜수도회에 들어가 24 살에 선종함으로써 10 년도 못 되는 짧은 수도원생활을 한 새내기 성녀입니다. 수많은 성인들이 대부분 그러하였듯이 위대한 업적을 남기거나 새로운 수도회를 창립하거나 순교를 하거나 성덕을 이루기 위해서 초인적인 신앙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봉채수도원에서 기도를 하고, 마룻바닥을 닦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것과 같은 평범한 일상생활에 전념하였던 수도자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성녀가 되기를 꿈꾸었던 데레사는 ‘구름을 찌르는 높은 산’과 같은 성인들에게 비하면 사람들의 발아래 짓밟히는 ‘작은 모래알’과 같은 자신의 무능함에 절망하였습니다. 그러나 데레사는 ‘하느님께서는 이루지 못할 원을 내게 일으키게 하진 못하실 것이다.’라고 마음을 굳게 먹고 그 길을 가리켜달라고 기도하고 성서를 찾아보았을 때 이 구절이 눈에 띄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서에는 ‘누가 만일 아주 작은 자이거든 내게로 오라’(잠언 9,4)고 하시는 ‘영원한 지혜’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녀는 ‘십자가의 성 요한’의 “순수한 사랑에서 나오는 아주 작은 행동이 하느님의 눈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며, 다른 사업을 모두 한데 모은 것보다도 교회에 유익하다.”(영혼의 노래)라는 말에 용기를 얻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작은 일’이야말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아주 소소하고 그러니까 마룻바닥에 떨어져 있는 바늘 하나를 찾을 때에도 주님께 대한사랑으로 주우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영혼 하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당신의 사랑을 증거하는데 조그만 희생하나 논길 한 가닥,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아주 작은 것도 이용하고 그것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성인의 길’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녀 소화 데레사가 발견한 ‘겨자씨’의 비밀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베드로의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자기도 모르고 한 말’(루카 9,33)처럼 ‘스스로 나팔 부는 위선’(마태 6,2 참조)이거나 ‘되풀이 되는 빈말’(마태 6,7 참조)일 때가 많습니다. 이런 애매한 믿음이야말로 주님께서 꾸짖으시는 ‘약한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신 것은 46 년이나 걸린 솔로몬의 거대한 성전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성전)’을 아끼는 사랑의 열정’(요한 2,17 참조)입니다. 주님은 심지어 돈과 권력과 궤변으로 얼룩진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다시 세우겠다.’라고 질타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은 우리들의 수도원인 가정 속에서부터 타올라야 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은 평화로운 곳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기 위해 겨자씨와 같은 작은 희생과 헌신과 양보와 인내들이 불꽃처럼 부딪치는 울코트 프레싱의 격전장입니다. 소화 데레사는 이 ‘작은 길’을 끝까지 달려가 작은 모래알이 되어 자신이 원했던 대로 ‘묵숨이 다하는 날 빈손으로 주님께 나아감’으로써 우리들에게 ‘장미의 꽃비’를 뿌리는 가톨릭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수호성인이 되었습니다. 소화 데레사는 말했습니다. ‘하느님께 가까이 가는 길은 이 층에 간 어머니를 찾아 우는 아기처럼 하면 된다.’ 우는 아기 데레사가 성녀가 되었다면 감히 우리도 성덕을 향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음식을 만들 때도 데레사처럼 사랑으로 하고, 자식들을 아기 예수처럼 대하고, 아내를 성모님처럼 공경하고, 남편을 주님을 대하듯 사랑으로 가득 채울 수 있다면, 우리의 가정은 성가정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만권을 읽은 책의 내용이 겨자씨와 같은 이발(李勃)의 머릿속에 깃들 수 있듯이 이러한 겨자씨의 믿음이야말로 수미산을 움직이고, 새들이 날아와 동지를 틀 수 있는 거대한 숲을 이루는 하늘나라의 열쇠인 것입니다.

† 공지사항

1. 미사 후 사목회의가 있습니다. 사목위원, 각 구역장님 및 성모위원장님 참석 부탁드립니다.
2. 다음 주 미사 (28 일) 후 공동체 식사가 있습니다.



휴식이 필요한 이유

허영엽 마티아 신부/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장

초등학교 시절 방학이 되면 외할머니 댁에 놀러 가곤 했습니다. 그곳에서 물놀이도 하고, 흙장난도 하며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처음에 동네 아이들은 하얀 얼굴에 흰 고무신을 신은 서울 아이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곤 했습니다. 그러나 며칠만 지나면 나를 강으로 들로 데리고 다니며 서슴없이 대해주었습니다. 더운 여름날 점심을 먹고 나른해지면 초가집 대청마루에서 할머니 무릎에 누워 매미 소리를 벗 삼아 낮잠을 잤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할머니께서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어주시면 난 이내 꿈나라로 직행했습니다. 지금도 눈을 감고 그때를 생각하면, 할머니의 부드러운 손길과 함께 시원한 바람이 이마를 스치는 것 같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현대인은 하루만이라도 아무런 간섭 없이 쉬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공감이가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요즘 너무 바빠서 심지어 죽을 시간(?)도 없다는 뼈있는 농담을 하곤 합니다. 휴식(休息)이란 한자를 보면 휴(休)는 사람(人)이 나무(木)에 기대 앉아 있는 모양이고, 식(息)은 자신(自)의 마음(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즉, 휴식이란 나무에 기대어 앉아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수상이었던 처칠은 낮잠을 잔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내 활동의 힘의 원천은 낮잠입니다. 낮잠을 자지 않으면 뭔가 부자연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처럼 꼭 낮잠을 자란 말은 아닙니다. 휴식의 중요성과 의미를 강조한 말입니다. 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은 “따로 외딴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하고 말씀하십니다. ‘외딴곳’이란 사람들과 일을 잠시 잊고 떠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셨을까요? 밀려드는 인파에 많이 지쳤던 것입니다. 휴식은 잠시 노동을 그치고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휴식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찾게 해 주는 것입니다. ‘외딴곳’은 바로 외적인 고요와 침잠의 장소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자기 자신과 만나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과 만남에 인식하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과 대화를 하고 잘 돌보아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가던 길을 멈추어 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멈추는 것은 결코 뒤처지거나 후퇴하는 것이 아닙니다. 멈출 줄 아는 것은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지혜를 바탕으로 살아간다면 피곤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다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과 주위를 진정으로 돌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외딴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마르 6,31)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휴식은 바로 주님과 함께할 때입니다. 그래야 나 자신을 잘 알고, 나 자신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내 주변도 한번 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본다면 많은 것이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